

제 80 호

발행일 : 서기 2003년 7월 25일 (금)
창간일 : 서기 1983년 9월 26일
구독신청 : (02)2244-3717, 2217-3717
FAX : (02)2243-1073
E-mail : andongkim9@korea.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태인
편집인 : 김명회
인쇄인 : 김성회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112-49
☎ 130-091
홈페이지 : iandongkim.com

會長團 會議開催

지난 4월30일(수요일) 회장단(會長團) 회의(會議)를 개최하여 당면한 대종회(大宗會) 현안과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논의 하였다, 이날 현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이사회의(理事會議)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금년사업은 유보(留保)키로 결의 된 사항이나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할 일 임으로 사전에 논의를 거쳐 준비함이 좋다는 뜻에서 음수재(飲水齋) 마당포장, 충열공(忠烈公) 할아버지 약사현판(略史懸板)과 회곡동 할머니 단묘(壇墓) 둘레석 교체 등등의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간에 들어온 견적(見積)도 심의(審議)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재정적(財政的) 뒷받침을 도저히 감내(堪耐)할수 없는 형편임을 회장단에서 잘 알고 계신 까닭에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참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관 3층 점포 하이리빙에 대한 수리(修理)에 대하여는 수석부회장이 현(現) 사항을 답사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 있어 이일만은 예비비(豫備費)에서라도 공



사비를 지출하여 수리해 줌이 도리라 하여 이 일만은 꼭해야 한다고 결의하여 견적금액(見積金額) 四百二拾萬원을 받아 업자와 협의하여 三百七拾萬원에 결정하고 천정 방수와 천정반자 및 목틀 유리창을 샅시로 교체(交替)하였다. 그리고 음수재(飲水齋) 마당 포장공사는 안동 성식(成植)부회장이 자갈로 깔면 한 百六拾萬원 정도면 한다 하여 다시 견적을 받아 보낼 것을 부탁하고 폐회(閉會)하였다.

전달하였다. 한편 지난 2000년 9월, 현양회 발기대회 및 제1회 묘제 때에는 안동김씨 문중을 대표하여 제학공파 규문(奎文) 종친께서 마련한 감사패를 현양 사업회 두 분께 전달한 바가 있다.

2000년 9월 발족한 김시약 장군 현양사업회(회장 이춘우)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2000년 3월에는 <충효로 생을 마친 의병장 김시약>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에 배포하여 장군의 업적을 드높이고 알렸으며, 가지산 언덕에 방치되어 있던 장군의 묘소를 지난 2001년 11월에 900만원(군 지원비-800만원, 현양회 모금액-100만원)의 비용을 마련하여 묘역을 말끔하게 단장하였고, 2002년 8월에는 정부로부터 1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아 충효 삼문 복원과 현충비를 제작하여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 많은 종친 여러분께서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약 496만원의 우리 문중 성금이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현양회 회장으로 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이 있었으며 그 성금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묘제 봉행 장면 (우중이라 행정민원실에서 행사)



기념식 시 감사패 전달 장면

충숙공 金時若 장군 三父子 충효 삼문 복원 준공식 및 묘제 참배

김시약 장군 현양사업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에서 충숙공 김시약 장군과 두 아들님의 높은 국구정신을 기리는 충효 삼문 복원 준공식 및 묘제 봉행 행사를 가졌다. 약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 국회의원 안동준 의원과 박형규의원, 괴산 군수 및 많은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우리 문중에서는 대종회 회장님을 대리하여 대종회 명회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였고, 제학공파 학용 파종회장님을 비롯한 괴산과 천안 병천 등의 제학공파 종친 여러분, 그리고 청원군 오창의 안렴사공파 재택 파종회장님 외 여러분, 그 외 경향 각지에서 오신 여러 종친과 안사연 회원 등 약 4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행사 참가자 약 30여 명이 옹회(按, 광명관광대표) 종친께서 무료로 제공한 관광 버스를 편히 이용하기도 했다.

오후 1시에는 雨中이었기에 덕평리 마을 출장소(행정 민원실)에 임시 제례소를 설치하여 경건하게 묘제를 올

렸는데 초헌은 김문배 괴산군수, 아헌은 김시약 장군 현양 사업회의 이춘우 회장, 종헌은 문중대표로 창규 종친(提. 병천 거주)께서 올렸다. 제학공파의 용두, 태옥, 규문 종친께서는 묘제의례(儀禮)를 맡아 보았다.

충숙공 金時若 장군(1564-1627)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아우로서 임란시 형님과 함께 진주대첩 시 큰 공을 세우고 의병을 일으켜 왜적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으며, 정묘호란(1627년) 때에는 창성부사로서 침략한 청나라 대군을 맞아 고전분투 하다가 중과부적으로 두 아들(휘 공, 규)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친 분이시다. 그 후 1689년(숙종 15. 공 몰 후 62년)에 이곳 덕평에 정려가 세워졌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제 후 그 자리에서 <충숙공 김시약 장군 삼부자 묘역 성역화 및 충효 삼문 복원준공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 안동김씨 대종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를 세 분에게 대종회 회장님을 대리하여 김학용 제학공파 종회장님께서

-----<아 래>-----

- (성금자 명단. 무순)
1. 안동김씨 대종회 : 감사패 3개, 10만원
2. 제학공파종회 : 50만원,
3. 괴산 종친회 : 20만원,
4. 괴산읍 농촌중흥 : 10만원.
5. 천안 병천 제학공파 중흥 : 10만원
6. 청천종친회 : 20만원.
7. 안렴사공파종회 : 10만원
8. 도평의공파종회 : 10만원
9. 괴금회(재경 괴산안동김씨종친회) : 30만원.
10. 김상훈(제. 전 대종회장) : 30만원
11. 김학용(제학공파종회장) : 10만원
12. 김태진(제. 괴산종친회장) : 100만원
13. 김용대(의. 문영공파종회장) : 5만원
14. 익원공파종회(회장 영희) : 5만원
15. 김성희(안. 전 대종회부회장) : 5만원
16. 안렴사공파종회(회장 김재택) : 20만원
17. 김태운(안) : 20만원
18. 김관호(서) : 30만원
19. 김규일(제) : 50만원.
20. 김형수(제) : 30만원.
21. 김용두(제) : 3만원.
22. 김재호(제) : 3만원.
23. 김상수(제) : 5만원.
24. 김대호(제) : 5만원
25. 김태환(제) : 5만원
(\*이외에 성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현양회측에서 파악중에 있음)



충효 삼문 준공식 장면



충효 삼문과 현충비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 통상회비

- 10만원 : 준엽(의)
5만원 : 용식(안), 태병(도), 광식(의)
4만원 : 태연(문)
3만원 : 원목(안정공), 지용(군), 대석(의), 완식(의), 정홍(부), 제현(의), 용해(의), 원희(군), 우용(군), 용즉(문), 승희(문), 봉용(의), 재호(의), 태준(의)
2만원 : 수탁(의), 선진(안), 홍목(군), 종목(밀), 수대(의), 재화(안), 달수(의), 용주(안), 재찬(군), 재하(안), 홍희(전), 수인(의), 경희(전), 관목(문), 현철(문), 규영(제), 기종(도), 영덕(의), 윤한(의), 노수(의), 수석(의), 수기(의), 문춘(의), 두철(의), 진수(의), 홍식(안), 태웅(제), 재국(밀), 경중(의), 수일(부), 남식(제), 성희(의), 호식(의), 오식(안), 수영(전), 희수(도), 경찬(의), 용남(군), 무명1

특별성금 대종회장 김태인 : 2,000만원

- 1만원 : 재희(문), 진희(안), 성희(의), 종년(문)
計 1,530,000원 (2003.4.16 ~6.30)

■ 창조성금

- 10만원 : 명옥(의)
5만원 : 현목(전), 을화(안), 기호(부)
3만원 : 인목(안), 재경(제), 태인(의), 원일(의), 봉민(군), 상조(문)
計 430,000원 (2003.4.23-6.30)

■ 장학성금 2만원 : 태호(의)



# 호주제 폐지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

## (戶主制 廢止 反對 國民 總蹶起大會)



한국씨족총연합회와 각 성씨(姓氏)대표 유도회총본부 산하 유림단체를 위시하여 전국각지에서 참석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회원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5월 23일 종로 탑골공원앞에서 정가련공동대표 대한노인회 서울시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는 이해문(李海門) 정가련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최하고 구상진(具相鎭) 정가련 공동대표겸 사무총장의 경과보고와 이미자(李美子) 정가련 호주제 폐지 반대 전국 여성 총본부장의 선언문 채택이 있는 다음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등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호주제 폐지 반대 천만명 서명운동 개시를 선언후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이어서 각 단체에서 제작해서 들고나온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기동대의 저지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 선언문(宣言文)

대한민국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애국시민 일동은 이제 배달겨레의 근본인 정통가족제도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자랑스런 문화로서 수호되어야 함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의 인간다운 삶의 길을 밝히는 바이며, 자손만대에 민족 생존과 번영의 토대를 보존할 수 있게한다. 반만년 선조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이를 선언하며, 민족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며, 인류의 앞날을 진정으로 염려하여 이를 제기하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요, 시대의 요결(要訣)이며, 생존번영의 길이라,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부화뇌동하여 부모도 형제도 부정하고, 오직 분열과 투쟁만을 일삼는 일부 세력이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우리 가족제도를 여기저기 헐어내더니 이제 급기야 우리의 고귀한 가족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고유의 부부사랑과 부모자녀간의 송고한 천륜은 어디서 다시 찾을 것이며, 누천년을 이어온

혈통과 족보는 어찌할 것이며, 이리저리 갈갈이 찢겨 버릴 우리 후손의 앞날은 어찌할 것인가?

아!,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야만 사회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배달겨레의 송고한 사랑을 보존하려면, 가정과 집안이 절손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힘과 혼을 전승시키려면, 한민족이 세계사에서 굳건하게 제 역할을 해나가게 하려면, 우리 전통가족제도를 보존해야만 하는 것이니, 애국시민들이여! 사람마다 가정마다 모두 나서서 사이버 지식인들과 정략배들이 우리의 송고한 문화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극소수 급진여성들이 우리 가족제도 중에 남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트집을 잡고 여성 일반의 견해를 대변하는 듯이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 가족제도는 유구한 한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남녀의 본성에 알맞은 정당한 제도이다.

일부 정치가들은 이혼자, 혼외자들을 빌미로 하여 마치 개정론자만이 그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으나, 이혼자, 혼외자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전통가족제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며, 그들만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란 거꾸로 정통가정 전체를 옥보이고 사람이 사는 길을 어지럽히는 악법에 불과한 것이다. 참된 정치가라면 더 이상 그러한 불순한 방법으로 표 몰이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 가족제도가 여성을 착취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제도라고도 헐뜯고 있으나, 이는 여러 세계적 석학들이 부러워한 한국문화와 가족제도를 예외적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유엔 결의나 다른 나라 가족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 가족법을 비난하고도

있으나 가족에 관한 유엔의 결의는 권고안으로서 각국의 합리적인 문화적 편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호주제를 보면 이를 폐지한 일본이나 대부분의 외국은 결혼하면 부인의 성이 남편 성으로 바뀌거나 남편의 성을 덧붙이는 경향이므로 호주제 없이도 소속

가문이나 자녀의 성씨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의 성을 바꾸는 일이 없고 그 위에 데릴사위 제도 등 여계계승제도까지 있어 호주제가 없으면 소속가문을 정하거나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호주제가 반듯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숨겨둔 채 억지 선동을 일삼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는 우리 가족제도가 일제의 잔재이거나 중국 고대 가족제도의 아류라고 모독하는가 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비민주적 질서라고까지 매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들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잘못된 세력임을 드러내는 악질적인 거짓 주장 일뿐이다.

아아, 이제 애국선열께서 84년 전 일제의 강점에 항거하여 대한독립을 세계만방에 선언하신 이 자리에서 그 날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통가족제도 수호를 선언하니 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민족의 앞날에 밝은 새 기운이 힘차게 솟아올라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일부 불만계층의 갖은 모욕을 뒤집어썼던 우리 가족제도가

인류의 역사에 광명을 비추기 시작하였다. 사도(邪道)의 창궐로 어지러운 시련을 겪었던 것이 십년간의 요망한 세였다면, 정도(正道)로 새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세이니, 천지의 복운(復運)과 세계의 정기(正氣)가 함께 하는 우리는 우리의 정통가족제도를 수호하고 장차 인류 가족제도의 이상형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홀연히 분기하여 총궐기하였다. 양심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천백세 조상의 영령이 보호하시고, 전세계 올바른 기운이 도우니, 오로지 민족을 말살하려는 불순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의 자랑스런 정통가족제도를 수호하는데 총 매진할 일이다.

2003년 5월 23일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正統家族制度守護汎國民聯合

Alliance for Korean Orthodox Family Institution

(121-2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5-29

## 全國民이 놀란 家族法 改惡沮止의 함성

지난 6월10일 호주제 수호를 다짐하는 천만 유림의 함성이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성균관 가족법 대책위원회 주최로 家族法 改惡反對 汎國民 궐기대회를 전국에서 2만여명 유림 및 씨족연합이 모여 총 궐기했다. 이날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국회법사위원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등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여 전달하였으며 그 외 많은 구호와 메시지가 있었으나 이는 요약하고 성균관장 직무대리 李完熙先生の 연설문을 요약하면 우리는 5천년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이어온 문화민족이다. 나보다는 우리 가정과 집안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희생하는 충과 효를 민족의 정신적 支柱로 삼아 이 나라를 지켜온 백의민족이다.

우리가 천여년을 다듬고 지켜온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우리 민족의 얼이고 정신문화이며 민족혼의 뿌리이다. 그러나 서구제도가 유입되어 전통제도의 뿌리가 흔들리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의 천년유산인 戶主制를 폐지하자는 倫理妄想的 주장이 졸속한 급진적 외세추종자와 이혼녀 집단에서 發火되어 전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유산을 지켜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표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호주제도와 同姓同本 禁婚制度를 지켜 우리의 孝문화를 세계만방에 자랑해야 할 때다. 우리의 고귀한 姓氏를 이혼녀의 재혼구실로 삼는 사

랑하는 자녀를 담보로 말살하려는 親養子制度는 불륜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며 한민족의 뿌리정신을 말살하려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것 우리 정신을 가꾸고 길러 한국의 전통문화를 영원토록 이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킬 것이다. 우리의 뿌리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사수해야 한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뭉쳐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자. 戶主制度와 同姓同本 禁婚制度를 死守해야 한다. 不倫의 친양자 제도는 離婚女에게 자식을 담보로 하는 再婚구실을 주는 행위이다. 우리의 精神文化를 지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使命이다. 망국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따라서 호주제 폐지 發議 議員 낙선시키자. 호주제 폐지는 민족혼 말살 음모이다 등의 구호로 총 궐기하고 국회로 진출 할러할 때 수천 전경과 차량으로 저지하여 몸싸움을하다 전경이 무순죄며 자식 같은 사람들과 싸우지 말자하고 산회하였다.



### 안.사.연의 유연재공(諱 希壽)과 동고공(諱 魯) 묘비탁본 행사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에서는 자체 연간 계획에 의해 탁본 방법 연구 및 문중내 중요 역사자료 보존을 위한 탁본 행사를 지난 5월 4일(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의 광곡산(안양 백운저수지 입구) 서운관정공파 묘역에서 가졌다.

안.사.연 일행(참석자 5명-영환(문), 윤만(문), 발용(군), 태영(군), 항용(제))은 오전 10시에 재실(광곡재실)에서 모여 서운관정공파의 규면 원로 종친 어른의 안내를 받아 여러 해설 말씀을 들었고 묘역 맨 위의 장령공(휘)과 서운관정공(휘 綏) 단소에서부터 유연재공(휘 希壽-조선 중종조 문신, 도승지, 경상도관찰사 역임. 해서(楷書)를 잘 씀), 동고공(휘 魯-조선조 중종·명종조 문신, 유연재공의 子, 직제학, 첨지중추부사 역임. 서예로 유명) 묘소를 참배했다.

그리고 유연재공과 동고공의 특이한 사각형 묘소를 살핀 다음 두 분의 묘비석 탁본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희대학교 등에서 몇 번의 탁본 작업이 있었으나 우리 문중 자체에서는 탁본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 두 분은 우리 문중의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조선조의 대표적인 문관이요 명필가라는 점과 특히 유연재공의 비문은 아드님이신 동고공의 친필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들이 높았다.

먼저 항용 종친으로부터 간단한 탁본 작업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뒤 작업에 들어갔다. 도중에 서운관정공파 종회에서 특별히 베풀어주신 점심식사를 아래의 광곡재실에서 하였다.



유연재공 묘비

땀흘리는 노고 끝에 오후 7시가 돼서야 목표로 한 작업이 끝날 수 있었고 이어 아래의 재실로 내려와 모든 작품의 품평회를 가졌다. 제일 훌륭한 것 2점(유연재공, 동고공 탁본)은 재실에 남겨 액자로 제작하여 게시하기로 했다.

작업 종료 후 안사연 일동은 인근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속히 탁본해야 할 묘비와 작업 시기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이날의 행사를 마쳤다.

(안동김씨 홈페이지 <사이버 연구회>란 참조)

기사 제공자 : 恒鏞(提)



탁본 작업 장면

### 충무공 金應河장군의 戰死地

청태조(淸太祖)누루하치에 의해 무순성(撫順城)이 함락되자 명나라는 최후의 일전을 무순 동남쪽에 있는 사얼후에서 벌일 양으로 47만에 이르는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명나라의 원병요청을 출병중이던 강홍립(姜弘立)도 원수 이하의 2만 조선군(朝鮮軍)도 이 사얼후의 일익을 담당, 결전에 임하고 있었다. 청나라측 문헌에 보면 이 결전이 붙었을 때 모래바람이 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고 했다. 누루하치의 대군은 어둠속에서 밝은쪽을 향해 공략하게 돼있어 백발백중인데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은 밝은쪽에서 어둠을 향해 쏘지 않을 수 없었기 포탄의 모두가 버드나무에 맞을 따름이었다. 사서는 이 사얼후의 대패를 이렇게 적어 남기고 있다. [횡시(橫屍)가 산야를 덮고 피는 흘러 개울을 이루었으며 기치(旗幟)와 사졸(死卒)들이 혼하(渾河)의 물길을 막았다] 이 사얼후의 전투중에 도원수 강홍립은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적진에 투항했으며 김응하장군은 끝까지 사투하여 우리 한국의 군사(軍史)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에도 길이 빛을 남기고 있다. 우영(右營)사령관이던 김응하 장군은 십리를 두고 적군 6만명과 대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고 연기와 먼지가 사방을 가려 포와 화살을 쏠 수가 없었다. 이를 틈타 적군이 총 공격을 틈타 총공격을 피아진을 도록하는데 장군은 버드나무 한그루를 방패삼아 활을 쏘아댐으로써 접근하는 적을 모조리 적중시켜 시체의 밭을 이루었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칼을 휘두르며 싸웠고 칼이 부러지자 제 목숨 아끼고자 나라를 저버린 도원수 강홍립을 꾸짖으며 수명의 적을 닦는대로 박살을 냈다고 장군의 묘비명은 적고있다. 등 뒤에서 던진 적군의

창에 맞아 쓰러졌는데 우레 시체를 거두어 묻을때가지도 부러진 칼자루를 놓지 않고 노기면 눈을 감지못하고 있었다 한다. 그의 영웅적인 죽음을 우리러 우리 조정에서는 영의정을 증직하였고 명나라에서는 중국 동북지방의 가장 높은 벼슬인 요동백(遼東伯)에 봉했으며 적국인 청나라에서도 김응하장군이 방패삼아 싸웠던 그 버드나무에 장군버들(將軍柳)이라는 벼슬을 내렸고 그 벼슬 이름이 연유가 되어 지명이 돼내려다던데 지금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김응하장군이 전사한 사얼후산은 산이라기보다 표고 70m에 불과한 둔덕이요 사망자 5만명을 냈다는 결전의 고전장인 심하(深河)는 대적방(大狄房)담에 수몰되고 없었다. 다만 사신길 따라가던 길(朴鼎吉)이 짬을 내어 이어임을 서성대다 남겨놓은 시 한 수를 되뇌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백길의 심하(深河)와 만길의 산에는 지금도 모래땅에 피흔적이 완연한데 강위에서 장군의 혼을 부르지 마라 오랑캐를 멸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으려니

이제는 강물이 아닌 담에서 장군의 뉘를 초혼해야 할 판이니 무상하다.

조선일보 1993년 6월 10일 발췌

### 만사문집 발간식 거행 (晩沙文集發刊式舉行)

지난 5월5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소재 만취당(晩翠堂)에서 이 지역 유지 및 종친 200여명이 참석리에 만사문집 발간식을 거행(晩沙文集發刊式舉行)하였다.

만사(晩沙) 김진중(金振鍾)은 (1883-1951) 字는 성언(聲彦)이요 호

는 만사(晩沙)로 1883년 계미(癸未) 정월13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에 출생하여 어려서 의성(義城) 의병대장(義兵隊長)을 하신 운산(云山)공 상종(象鐘)의 문하생으로 그 충명과 자질은 그 누구와 비길수 없었으며 항중(鄉衆)의 모범이신 분으로 1896년 만

13세때병신년 창의로 인하여 아버지를 여의시고 사촌 동리가 잿더미로 변하자 의성군 안평면 화령리 외가에서 사시다 39세에 사촌 고향으로 돌아와 문중일을 보시고 의성 사림(士林)을 대표하여 30년간 활동하시다 1951년 4월 8일 향년 69세로 별세하셨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셨고 손자 억(億)이 할아버지의 문집을 발간하였다.

###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組版·印刷·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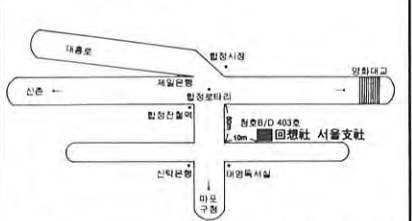
### 族譜 出版 의 元祖

#### 回想社 五大 特徵

1. 創立 46年の 歴史와 全國族譜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 印刷 出版界의 元祖.
2. 族譜 組版 프로그램을 特別히 開發한 컴퓨터 組版으로 迅速正確하게 電算出力하는 族譜出版界의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組版, 印刷, 製冊, 出版까지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謬謬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 以上の 넓은 倉庫를 無料로 1年以上 頒快 便宜 提供.

####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 서울 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印刷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습니다.  
\* 各 門中の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 回想社

본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47-4 전화(042)253-9881~3 Fax(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전화 (02) 336-6783 Fax (02) 338-9875



◆특집◆ <제주도 문중 유적 답사기>

충렬공(諱 方慶)의 삼별초 토벌과 남봉공(諱 緞)의 방선문 마애시 답사기

제학공 23世孫 恒鏞

2003년 2월 25일 새벽 5시 40분, 새벽 잠을 설치고 일어나 거리로 나온 우리 가족 4명은 이른 새벽 여명의 도로를 가르며...

란다. 옛날 어느 멋스런 호사가(好事家)의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 필력이 그 속에 가득 스며있다. 전에는 이 곳에 많은 소풍객과 관광객들이 사철 가득 붐볐는데 요즘은 더 흥미있고 새로운 분위기를 찾으려는 변화 때문인지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한다.

한 달 전(1월) 아저씨께서는 당신께서 운영하시는 목요강좌(사설 한문 연구기관)의 여러분을 대동하고 이곳에 사전 답사 왔었는데 방선문 벽 속에 있다는 말만 듣고 벽에서 남봉공의 시를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분이 바위 위에서 담배를 피다가 밟고 있는 발 밑에서 우연히 남봉공의 마애시를 발견했다고 한다.

남봉공(南峰公, 휘 緞, 1577(선조10)~1625(인조3))은 제학공 10世孫으로 피산 출신이다. 자는 사정(士精)이요 호는 남봉(南峰), 심곡(深谷)이다. 아버지는 부사 시회(時晦)인데 충무공 김시민 장군에게 입양되었다.

1597년(선조30)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설서(設書)를 거쳐 1608년 사가독서(賜假讀書)를 했다. 1609년(광해 1년) 3월에 이조좌랑으로 있다가 이곳 제주에 판관으로 왔으며 이듬해(1610년) 9월에 떠났다.

광해군의 학정이 날로 심해지자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1623) 때에는 인조의 반정 성공을 예측했고 거사일을 정해 주기도 했다.

君)에 봉해졌다. 천문(天文)에 밝았으며 저서로 <심곡비결(深谷秘訣)>과 시문집 <남봉집(南峰集)>이 전한다. 남봉공은 이곳에서 유한라산시를 비롯한 약 6편의 한시를 지었는데 지금도 이곳에서는 명작으로 손꼽히며 전하고 있다.

石非神斧 琢成此石非神斧 琢成此石非神斧 琢成此石非神斧 琢成此石非神斧



탁본 작업 모습



탁본

작업하기가 꽤 곤란한 곳이었다. 비스듬한 바위이기에 작업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아래로 미끄러졌다. 도와주시는 아저씨도 마찬가지다. 괜한 나의 극성으로 함께 고생하시는가 싶어 송구스러웠다.

다시 차를 몰아 제주 시내에 있는 삼성혈을 들른 다음 아저씨께서 예약해 두신 제주 전통음식점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갔다.



남봉공의 유한라산기 목각판

이제부터는 충렬공의 삼별초군 토벌 전적지 답사가 시작된다. 차를 몰아 제주의 동쪽 방향으로 약 20분 쯤 달려 함덕포에 이른다.

1273년 4월 9일, 충렬공은 국가에 반역하며 일어난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해 출병한 여몽 연합군 1만명(고려군 6천, 몽고군 2천, 한군 2천)과 선단 160척을 지휘하여 추자도에 이르렀다.



함덕포

당시 삼별초의 이시화(李時和) 등이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연합군의 대정(除正) 고세화(高世和)가 돌진하고, 장군 나유(羅裕)가 선봉대를 거느리고 맹공격을 하자 바위 틈에서 활로써 공격하던 삼별초의 함덕 방어선은 무너지고 말았다.

함덕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는 해변 도로는 새롭게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길로 돌담이 연이어 있었다.



제주의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갔다고 한다. 식량공급이 안되어 자신의 대변을 받아먹을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갔다. 불과 2년 만에 이 많은 공사를 해 냈던 당시 삼별초의 횡포와 제주민들의 고초를 생각해 보았다. 1시간 여를 달려 애월포에 닿았다. 포구 안쪽에는 주성인 항파두리 성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였던 애월진이 있었다. 이곳의 포구 주변에도 옛부터 있어온 환해장성이 아직도 우뚝하게 남아 있다. 삼별초에 의해 쌓여지기 시작한 환해장성은 그 후 고려군에 의해 다시 쌓여졌는데 지금도 다섯 곳은 그대로 남아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점차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포구 안쪽으로 들어가니 엄청난 규모의 애월진이 나타난다. 이곳은 효종때 제주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그의 표류기에서 하멜 일행이 압송도중 점심을 먹었던 곳으로 묘사돼 있기도 한 곳이다. 해변임에도 우뚝 솟은 위치에 자리잡아 멀리 바다를 경계하기에 좋았다. 주위 성곽은 옛날 그대로 돌로 쌓여 있고 성안에는 애월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문 입구 안내 표석에는 「1271년(원종 12)삼별초의 난 때 목성이 축조되었으며 1581년(선조 14) 김대정 목사때 포구로 옮겨 돌로 쌓았다. 둘레 549척, 높이 8척이었으며 남과 서에 성문이 있었다 (하략)」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을 지나 계속 해안가를 달려 한림을 지나 명월포와 옹포(독개)로 간다. 명월포는 항만공사로 한림항으로 확대되면서 매립되어 옛 포구가 없어졌고 바로 가까이의 옹포는 지금도 포구로 쓰고 있었다. 이 옹포는 명월포와 더불어 삼별초의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그 앞 바다 저쪽으로 비양도가 있었다. 서녁 노을에 눈부신 저 섬, 당시 충렬공은 이 비양도를 은폐 업체물로 삼아 삼별초군을 살피며 유인작전도 쓰고 토벌군을 잠시 쉬게도 했던 공격 전초기지다. 당시 긴요하게 섬을 활용했던 충렬공의 눈빛과 작전을 생각해 본다. 적장인 김통정이 충렬공의 양동작전에 속아 우회 공격해 온 충렬공의 주력부대가 파군봉을 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뚫어지게 저 앞의 비양도만을 바라보고 있던 포구가 바로 이곳 명월포와 옹포이다.

다시 차를 몰아 내륙으로 향했다. 이제 항파두리로 간다. 마치 충렬공께서 공격해 가던 모습으로 말이다. 애월읍으로 되돌아 갔다가 우회전하여 항파두리로 올라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파군봉(破軍峰)은 저 너머에 우뚝 서 있었다. 함덕 상륙에 성공한 충렬공은 해안을 따라 송담천, 제주를 지나 서쪽으로 진군하여 이곳 파군봉에서 삼별초와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였다. 이 전투에 패한 삼별초군은 사기가 크게 꺾였고 낮은 능선으로 약 10여 리를 이어 있는 항파두리 성으로 모두 퇴각하였다.

이 때 명월포 앞에 있던 선단(30척)도 군병이(하귀리 포구)로 상륙하여 충렬공 부대에 합세하게 되었다. 드디어 여몽연합군은 주성인 항파두리성을 에워싸고 화공으로 맹공격하였다. 삼별초의 유성장 김원운(金元允), 김운서(金允弒)등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 공세를 퍼서 드디어 성을 함락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애월읍 고성리(古城里)의 항파두리(缸坡頭里)란 지명에 대해 궁금했다. 우선 일반적인 다른 지명과 비교해 볼 때 어감상 특별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아저씨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기고해 주신 적도 있었지만(2002. 7. 14. <김방경과 제주>) 이 지명은 제주에서도 많은 이론(異論)이 있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저씨께서는 일찍이 깊이 연구하신 바 있었다. 1992년 11월 26일자 제민일보에 소개된 내용 일부를 잠시 정리해 본다.

"---항파두리의 어원을 살펴보면 '항파'와 '두리'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항파(缸坡)는 고려때에는 '항파(缸破)'로 표기되던 것을 조선조에 와서 '缸坡, 缸坡'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본다. 고성리가 해변이 아니므로 波에서 坡로 고쳐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缸破가 제일 먼저 나온 출전은 <高麗史>의 열전 중 裴孫仲 條와 <高麗史 節要>의 元宗順孝大王庚午十一年條이다.

즉 고려사의 배중손 조 중에 「강화에서 지키던 군사가 많이 도망하여 육지로 나가니, 적이 능히 지키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이에 함선을 모아 공사(公私)의 재화와 자녀를 모두 싣고 남으로 내려가니 구포(仇浦)에서 항파강(缸破江)까지 배들의 꼬리와 머리가 서로 닿아 무려 천여 척이나 되었다...」고 했고 <고려사 절요>의 元宗 庚午十一年條에도 똑같은 문장이 실려 있다. (중략) 구포(仇浦)란 지금의 강화도 서쪽 내가면 외포리(內加面 外浦里)의 외포항(外浦港)을 일컫는다. 항파강(缸破江)은 용진진(龍津鎭), 광성보(廣城堡), 덕진진(德津鎭), 초지진(草芝鎭)에 이르는 강화도 동안(東岸)의 남쪽 협수로(挾水路)를 말함이다. 특히 좁은 곳은 급수문(急水門) 또는 손돌(孫突)목이라고 부른다. (중략)

다음에 '두리'는 무엇인가? '두리(頭里)'란 바로 '두레'의 한문표기인 것이다. 이병도 박사는 「(중략) '두레'는 삼남지방에 아직도 남아 있는 말로서 '협동체, 공동체'의 호칭으로 '군사단체, 근로단체, 유희단체, 신앙단체, 공제단체, 경기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레'는 「도(徒)의 뜻인 '들(무리)'이 그 어원,이란 지적이다. (중략)

그러므로 '항파두리'를 풀이하면 '항파강(缸破江)을 떠난 항몽집단체 내지 군사단체'란 해석이 된다. (중략) 보다 정확한 기록에 근거한다면 위에 논증한 바와 같이 '항파두레성(缸破두레城)'으로 불려야 될 것으로 본다."

다소 긴 인용문이지만 아저씨의 해박하신 어원 분석에 감탄과 아울러 이를 널리 알리고 싶기에 인용해 본 것이다. 아저씨는 아직도 이곳 지역 주민들이 그저 아무 어원 근거도 없이 '항파두리'라고 불려 왔다고만 말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토로하신다.

城 가까이로 가니 약간 우뚝 솟은 터에 높이 쌓은 토성이 길게 연하여 있는 웅장한 항파두리성이 나타난다. 동편 문으로 들어가니 다시 넓은 터가 나온다. 입구에서부터 웅장하다. 당시의 규모를 말만 하다. 불과 2년 만에 이곳에 들어온 삼별초가 환해장성을 쌓고 또 15리나 되는 원형의 토성을 순수 인력으로 죽여 만든다니 당시의 토역공사(土役工事)에 시달린 제주민들의 고역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했다.



항파두리토성

성 안의 중앙으로 들어가니 길게 담장을 두르고 앞에는 커다란 문을 겸한 건축물 하나가 나타난다. 문 입구 안내판에는 <항파두리 함몽유적지(사적 제 396호)>라 적혀 있고 삼별초군의 항몽사적과 정신을 찬양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입구의 문 위에는 <순의문>(殉義門)이라 새긴 현판이 걸려 있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이 삼별초의 지휘부 건물이 있던 곳이다. 커다란 돌에 새겨진 기념비가 있다. 전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로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라 적혀 있고 뒷면에는 삼별초의 항몽정신을 기리는 이선군 전 문교부장관이 지은 글이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다. 역시 군사정부 시절인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대형 분향로도 하나 놓여 있었다.



항몽 순의비 비석

역사란 어느 한 정치가가 자신의 권력과 자의적 해석으로 정사(正史)를 왜곡시키고

오도(誤導)하며 그 자리에 무슨 거대한 기념물을 세워 왜곡사를 강조한다 해도 결국은 사실귀정(事必歸正)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제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입구 좌측에 있는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당시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과 삼별초의 사건을 7폭으로 그린 그림들이 대형으로 걸려있다. 더러는 미화시키고 왜곡도 되어 있다. 이어 옆에 있는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삼별초 이야기를 소설화한 책<삼별초의 빛>, 文先熙 저, 제은경 간, 1978) 하나를 얻어 나왔다. 그리고 성의 서쪽문으로 나왔다. 이곳 토성 앞은 낭떠러지의 계곡이 천연 해자(壕字)로 잘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성밖 서북쪽에는 큰돌에 사람의 발자국처럼 깊이 파인 흔적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고인 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장수물이라고 불렀다. 김통정이 아주 날랜 사람으로서 성 위에서 뛰어 내릴 때 돌에 생긴 자국이라 전해온다 토성 옆으로 난 북쪽 길을 따라 차를 타고 돌면서 성을 살폈다. 토성의 위와 아래에서 싸우던 당시의 전투 장면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다시 동편 입구 가까이로 오니 '구시물'이란 곳이 나왔다. '구시'란 '나무나 돌로 수로를 파서 만든 것'이란 뜻인데 물이 귀한 제주에서 이 우물은 당시 삼별초 군사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식수 보급처였던 것이다. 그래서 토성 밖인 이 우물을 작은 성으로 쌓아 보호했던 것이다.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돼 있었다.



삼별초의 식수터-구시물

당시의 고려 관공과 삼별초의 전투를 잠시 생각해 본다. 얼마 전까지 강화도의 한군부대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항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전우들이다. 그런데 고려 환도 이후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한 삼별초의 반역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적이 되어 눈을 부릅뜨고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죽이고 죽어야 하는 비극이 이곳에 있었다. 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숙명적 비극이 여기에 또 있어야 했다. 그 한 가운데에 우리 충렬공할아버지의 고뇌가 있었고 실행하고 싶지 않은 전투와 살육의 비극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죽은 이들은 누구며 죽인 이들은 또한 누구란 말인가!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가? 민족의 숙제인 한반도 관문국의 괴로운 국제 문제와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여러 가지 비뚤한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당시 전투에서 승리한 충렬공 할아버지는 휘하장병을 거느리고 항파두리성에 입성하여 부녀자와 일반인들의 아우성 속에서 말하기를, 「역적의 괴수는 죽이고 협박을 받아 이곳에 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운서 등 성을 지키던 장수 6명의 목을 베었고 항복한 남녀 1천3백 여명은 여러 배에 나누어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편안히 살게 하였다.

한편 성에서 패전한 김통정은 성을 탈출하여 산악전을 펼치기로 하고 선봉장 이문경에게 군사를 모집하게 하는 한편 중군장이순공(李順恭)에게는 병기를 마련하게 하고, 좌익장 조시적(曹時適)에게는 군마를 징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한라산 중턱의 <붉은오름>에 올라가 삼별초군 70여 명으로 진을 치고 끝까지 항전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 <붉은오름>은 일명 적악(赤岳)이라고도 하는데 항파두리에서 남동쪽으로 10km 쯤의 북제주군 광령리의 한라산 중턱에 있는 해발 1061m의 산 봉우리이다.

1273년(원종14) 5월 6일, 충렬공은 송보연(宋甫演)을 선봉장으로 삼고 총공격을 하였다. 삼별초의 이문경, 김혁정(金革正) 등은 전사하고 결국 이곳에서 삼별초의 수장 김통정은 부인 이화선과 함께 자진하였고 이외에 이순공, 조시적 등도 붙잡혔으나

끝내 불복하므로 목을 베었다. 그래서 모든 전투는 종결되었던 것이다. 충렬공은 후에 송보연으로 하여금 군사 1천명을 남겨 뒷수습을 하게 하였다.

이제 날은 시나브로 어두워진다. 차의 라이트를 켜다. 급히 차를 몰아 가까이 있는 만호대를 찾았고 이어 옆에 있는 명월성지를 보았다. 더 이상 보고 싶어도 완전한 어둠으로 이제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이내 차를 몰아 제주시로 들어갔다. 아저씨는 미리 예약해 두신 고급 일식집으로 우리를 데려 가신다. 처음 보는 산해진미의 음식에 우리 가족은 포식을 했다. 여기서도 아저씨의 해박하고 논리적이며 구수한 설명은 계속된다. 가끔 가다가 섞는 제주도 사투리에 향토색이 달다. 저녁 9시 30분, 그래도 한 곳의 답사가 남았다고 하며 우리를 제주목사가 있던 관아로 안내한다. 서치라이트 조명을 받아 밤이지만 전체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복원된 제주목사(牧使)의 관아라고 한다. 그 관아에는 여러 개의 비석들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번역한 비문 번역 안내판이 비석들 앞에 진열되어 있었다. 아저씨의 높은 한문 지식과 제주 문화재를 빛내기 위해 쏟는 정열과 업적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밤 10가 넘었다. 작별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밀감 한 박스를 챙겨 주신다. 이 고마움을 어찌 다 갚을수가 있을까? 제주에서의 밤은 아무래도 낯설다. 몇 잔의 술로 객수를 달래고 잠을 청한다. 내일은 7시에 일어나야 한다.

26일부터 이틀 간 관광 버스를 타고 우리 가족은 일반 여행을 했다. 그 때도 틈틈이 아저씨는 우리를 챙기신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가 탔던 <하나로 관광> 여성 가이드(40대 초반, 제주 태생, 20년 가이드 경험)의 여행지 해설력이 뛰어나기에 옆으로 슬그머니 찾아가 항파두리의 항몽 유적지에 대한 여행사 가이드의 설명내용에 대해 물었다. 가이드는 항파두리 코스는 일반관광팀에는 없고 대체로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단과 대학생들의 여행 코스에만 들어 있다고 답한다. 그리고 예상대로 삼별초의 항몽정신과 자주 국방정신, 순의(殉義)정신을 강조한다고 한다. 그렇게만 설명하고 만다면 가이드의 해설 내용에 구체적인 거명은 없었지만 상대편 관공의 수장이었던 우리 충렬공 할아버지는 당연히 반민족주의자요 외세 의존주의자요, 사대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 부분이 우리 후손들이 제주관광협회에 해설자료를 보내어 바른 역사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요구해야 할 의무적 과제라고 생각했다.

1977년 전까지 제주에 기록된 모든 관청출판 사료(史料)나 읍지, 그리고 고·양·부씨 문중의 사료까지도 김통정과 삼별초는 제주민을 학대·혹사하였으며 '역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이후는 삼별초가 명백히 고려의 중앙정부에 항거한 반역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을만이 순수 항몽단체인양 왜곡시켰으며 이곳 항파두리를 마지막 항몽지로 미화시키기에 이른 것은 유감 아닐 수 없다. 즉 개성환도 직전까지 고려의 무인집단이 고려왕실과 함께 몽고에 저항한 것은 항몽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곳 제주 항파두리의 항몽순의비는 고려왕실에 대한 저항이었던 반역자들의 단체였음을 간과한 것이다.

여행 마지막 날, 아저씨는 비행장으로 전송을 나오셨다.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너무도 감사하다. 아이들이 감사하며 더 어쩔 줄 몰라 한다. 혈육의 정과 깊은 인간적 애정을 가슴속에 꼭꼭 담아 주신다. 비행기 탑승을 위해 출구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남은 우리에게 손 흔들어 아쉬움을 보내신다.

8시 50분에 제주를 이륙한 비행기는 한 시간 여를 날아 김포에 도착했다. 11시가 넘자 서울 우리집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 왔다. 피곤했다. 그러나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여행이었기에 이토록 가슴 뿌듯할 수가 없다. 컴퓨터가 보인다. <안동김씨 홈페이지>가 궁금하다. 전원을 키는 내 등 뒤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더 걱정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지켜본다.



### 판서공 휘 선(愼) 시제봉행

지난 4월 17일(음 3월 16일)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에 충열공의 장자인 판서공 휘 선(愼)단소(壇所)와 대제학공(휘 承用), 평리공(휘 厚), 군사공(휘 七陽)의 세향이 봉행되었다. 이날 시제에는 근, 원 동(近遠洞)의 군사공파 일가들을 비롯해 밀직사사공파, 개성윤공파, 부사공파, 문은공파, 도평의공파 종친 및 대중회사무국장, 안사연 회원 6명을 포함하여 50여명이 참여하여 성대히 진행되었다. 판서공 시제에는 초헌관 경묵(景默: 군사공파), 아헌관 재철(在哲: 군사공파), 종헌관 종회(宗會: 문은공파회장)께서 헌작하시었고, 대제학공의 시제에는 초헌관 영응(榮應: 밀직사공파), 아헌관 명회(命會: 의원공파, 대중회사무국장), 종헌관 재은(在殷: 부사공파)씨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 평리공의 시제에는 초헌관 상국(相國: 개성윤공파, 태항렬), 아헌관 재홍(在鴻: 군사공파), 종헌관 재모(在模: 군사공파)께서 헌작하였으며, 군사공의 시제에는 초헌관 홍수(鴻洙: 군사공파), 아헌관 재홍(在鴻: 군사공파), 종헌관 재영(在永: 군사공파)께서 헌작하였다. 이어 군사공 할아버님의 시향제가 마친뒤 바로 이어 군사공파 묘역 좌측 산자락에 영면해 계신 휘 흥업(興業)선조님의 시향제가 봉행되었다. 휘 흥업(興業)선조님은 군사공파 5세손으로 강진군 군동면 내동의 입향조이신 휘 질(瓚)선조님의 아드님이시며 매년 음 3월 16일 군사공선조님의 시향제에 이어 봉행된다고 한다.

### 제2회 노정 김재철 학술상

〈노정 김재철 학술상〉은 한국 최초의 연극사인 [조선연극사]를 쓴 노정(蘆汀) 김재철(金在喆, 1907~1933)의 연구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한국극예술학회와 도서출판 연극과인간이 최근 공동 제정한 것이다. 2002년 2월 5일 동국대에서 제1회 시상식이, 2003년 1월 24일 한양대에서 제2회 학술상 시상식이 있었다.

한국극예술학회 홈페이지 (<http://www.kdrama.or.kr>)에서 시상식 내용을 볼 수 있다.  
 ◇2002년 제1회 수상자 및 저서 : 유민영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장 [한국연극운동사]  
 ◇2003년 제2회 수상자 및 저서 : 서연호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한국가면극연구]

우리 연극사 연구의 개척자인 金在喆의 일대기는 그의 명성에 비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가 27세에 요절한 탓에 기록이 남지 않은 때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그의 사후인 1934년에 편집된 [노정 기념집]이 발간됨으로써 그의 문학수업과 연구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노정 김재철 학술상〉 제정 수상을 계기로 최근 활발한 자료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시대의 연극인](2001, 서연호, 연극과인간)에 비교적 자세한 내

용이 게재되어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약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在喆 (1907~1933) : 한국연극사 연구의 선구자. 국문학자. 본관은 안동. 호는 노정(蘆汀). 1907년 8월 27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에서 안동김씨 사원(思元)과 申氏 사이의 천석지기 부유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다. 고려의 명장 김방경(金方慶)의 후손이고, 여말의 충절 오은 안렴사공 김사렴(金士廉)의 후손으로, 어린 시절에는千字, 唐詩, 通鑑, 四子書 등을 읽었다. 1921년 괴산공립보통학교, 1926년에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해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1928년 4월 법문학부 조선문학부에 진학하여 1931년에 졸업하였다. 평양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년만에 죽었다. 학문적 업적으로는 논문으로 '조선어화의 조선어'가 있고, 저서로는 [조선연극사] 외에 민요 소설 김삿갓 등의 연구를 묶어 출간한 [노정잡고]가 있다. [조선연극사]는 우리나라 연극사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정 김재철선생의 소고' ([조선연극사], 학예사, 1939)

## 안렴사공파 후손 세거지(世居地) ① 덕평파(德坪派)

안렴사공 사렴(士廉)의 종손 직계가 되는 안원군파(安原君派)는 옛 지명을 따라 덕평파(德坪派)라 부르기도 하는데, 안원군 공량(公亮)의 조부 휘자가 종손(宗孫)이어서 종손 또는 종손파라 하지 아니하고 사손(嗣孫) 또는 사손파(嗣孫派)라 한다. 소윤공 약-지주사공 우주(遇周)-판교공 환(丸)-참의공 종손(宗孫)-참판공 성(城)-안원군 공량(公亮)-진천현감 완(浣)으로 이어지는 사손의 가계로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소정리,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등지에 많은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城의 아들로 안원군파의 파조가 되는 공亮(1472~1544)은 안렴사공의 7세손으로 자를 필지(弼之) 호를 양곡(楊谷)이라 하였으며 증직으로 이조판서와 양관 대제학을 받았고 보조공신(輔祚功臣)에 올라 안원군(安原君)의 군호를 받았다. 공은 목재(默齋 李深源, 1454~1504)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학문과 덕행이 순결(純潔)하고 아름다웠는데, 연산조때 절제과로 등제하였으나 스승과 못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전시(殿試)에 나가지 않고 세사(世事)에 뜻을 버리고 고향에서 고요히 지내었다. 묘는 경기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백양동에 있으며, 묘갈은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이 짓고 동고(東阜) 김로(金魯, 1498~1548)가 썼다. 정사룡의 문집 [호음잡고](湖陰雜稿)에 <유명조선국 김군공량묘갈명>(有明朝鮮國金君[公亮]墓碣銘)이 실려 있고,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 실었다. 안원군의 묘갈을 쓴 로(魯)는 우리 가문의 서운관정공파 희수(希壽)의 아들이

며 당대의 명필로서, 이외에도 승지공 김공예(金公藝, 1485~1537) 묘갈, 아버지 김희수(金希壽, 1475~1527) 묘비를 글하였다. 안원군 공亮에게는 모두 3자가 있었는데, 장자인 진천현감 浣은 자를 정숙(靜叔)이라 하였고 진천현감을 지냈으며 증직으로 좌승지를 추증받았다. 부인은 안동강씨이고 묘소는 울목동에 있던 것을 소정면 운당리로 이장하였는데 이장시 명기(明器:조선시대 土族들의 묘소에 함께 묻는 부장품)가 출토되어 사손이 보관하고 있으며 목관과 복식도 그대로 출토되었다고 한다. 목관은 7자×8자반의 겹관으로 복식은 누비이불등의 고급 복식이 400년 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관끈도 그대로 보존되어 그 끈을 잡고 운구하여 이장하였다 한다. 소정면 운당리에는 현재 17대손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손인 龍植(1936생)의 주관으로 1995년 운당리에 진천현감공 이하 모두 15대 34위의 장자·장손의 묘소를 이장하여 모시고 있다. 묘소입구에는 해방이후 이전한 안원군파 재실이 있다. 浣의 아들인 충남(忠男, 1530~1618)은 자를 서경(恕卿)이라 하였고 퇴계 이황의 門人으로 1564년(명종19) 생원시에 합격하여 학행으로 천거를 받아 교관에 올라 토산현감을 역임하였다. 89세로 장수하여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호조참판을 증직받았다. 퇴계 이황의 문인록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에 실려 있다. 忠男은 아들이 없어 壽男(공량弟 公爽의 후손)의 아들인 엽(曄)을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군위현감과 壽職

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정삼(鼎三)은 안렴사공의 12대손이며 숙종조시 武科급제하여 선전관, 비변랑감찰, 함평현감, 낙안군수를 역임하였다. 1715년(강희54)에 세운 <군수 김후정삼애민정덕선정비>(郡守金侯鼎三愛民清德善政碑)는 전남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낙안읍성 향교입구에 있다. 정삼(鼎相)의 가계에서 한말에 희수(喜秀 : 족보명 喜源)-호준(好燾 : 족보명 榮澤)으로 이어지는 인물을 배출하였다. 喜秀(1821~1878)는 음직으로 1878년 선공감가감역에 임명되었고, 그의 아들 好燾(1867~1914)은 1886년(고종23) 무과에 갑과 1인으로 급제한 뒤 상서원주부, 훈련원판관, 첨정을 거쳐 토산병마절도제위, 그리고 1893년에는 용양위부호군으로 경주영장에 임명되어 안동지역의 동학군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의 교지와 유품을 사손이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안동 일대의 동학 토벌에 관련된 일기 [영가일기](永嘉記事)는 필초본으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줄 사료로서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안원군파에서는 文科급제 1명(환), 생員進士급제 6명(忠男, 元厚, 磷, 備, 鼎運, 鼎新), 武科에 21명(備, 謹厚, 石求, 彦國, 命壽, 顯國, 命岳, 命赫, 鼎三, 重國, 命益, 瑩綬, 周永, 佐國, 命峻, 榮澤, 鼎瑞, 鼎德, 思默)이 급제하였다. 조선조 사마방목을 보면 忠男의 부친 완(浣)은 봉령대부 行진천현감을, 元厚의 부친 엽(曄)은 통훈대부 行활인서별제를, 철(備)의 부친 명준(命峻)은 통정대부 行장연현감 해주진관명마

절제도위를 지냈음을 알 수 있고, 이외에도 안렴사공파 세보를 보면 구(石+求)는 구례현감을, 명혁(命赫)은 여산도호부사를, 정삼(鼎相)은 경흥부사를, 좌국(佐國)은 다대첨사를, 정덕(鼎德)은 정평부사를 지내고 분무원종훈에 책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원군파 후손으로 在完은 1950년대에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회위원을 역임하였고, 在元은 근 30여년간을 오직 종사에 헌신하였으며, 현재 태원, 재은, 호식은 사손 용식과 함께 종사일이면 남다른 정성을 보여주어 종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在龍(1956생)은 안렴사공 인터넷 홈페이지 (<http://hgdryj.hihome.com>)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운당리에는 안원군파 외에도 안렴사공 후손이 많이 세거하고 있는데, 공식(公奭)후손 엽(曄)이 공량(公亮)후손 忠男의 양자로 들어올 때, 형 엽(曄)을 따라 이거해 온 담(曇)이 형의 도움으로 천석지기 부유한 가문을 이루어 그 후손이 세거하고 있으며, 1980년대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在益(1938~1983)은 그의 후손이다. 또한 공언(公彦)후손 일파가 이거하여 세거하고 있으며, 漢植(1962생)은 현재 연기군의회의원(2002년 당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내용은 [안렴사공파 세보](1988 무진보)와 [연기지역의 충렬공 후예들](1997, 안동김씨 연기군종친회) 책자를 저본으로 하여 몇가지 자료를 추가하여 편집하였음 <기사제공자 柱會(按) 016-9566-5678>



# 백범 김구선생(白凡 金九先生) 제54주기 추모식 봉행



처럼 우려 하신대로 6, 25 동족상쟁(同族相爭)이 이 땅, 이 강토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백만의 동포가 죽이고 죽는 민족사(民族史) 최대(最大)의 비극(悲劇)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우리 국민은 선생님의 뜻을 따라, 지금으로부터 3년전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에서 서로 만나 정상회담(頂上會談)을 열고 6 15 남북공동선언문(南北共同宣言文)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迂餘曲折)은 있었지만, 화해협력(和解協力)과 민관(民官)의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단(分斷) 반세기(半世紀) 이상이나 막혔던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가 다시 연결(連結)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몽상에도 하고자 하시던 일들이 반세기(半世紀) 지난 이제야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26일 오전10시 백범기념관에서 정부요인(政府要人)과 광복회장(光復會長) 및 회원(會員)과 각계 인사 200여명의 참석리에 기념관건립 첫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대회의실에서 봉행하였다. 이날 우리 문중(門中)에서는 태인(泰麟)대종회장의 10여명이 참석하였다.  
다음은 사단법인 백범 김구선생(白凡 金九先生) 기념사업회장이며 선생의 아들인 김신 회장의 식사이다.

## 식사(式辭)

오늘 2003년 6월26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主席)이신 백범 선생님의 제54주기를 맞이하여 삼가 영전에 음소하옵니다. 올해의 추모식은 온 국민의 정성과 국고의 지원으로 이룩된 웅장한 백범기념관이 지난 가을에 준공된 이후, 처음 맞게 되어 감회(感懷)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백범 선생님의 사상과 노선은 불온시 되고 국민으로부터 격리(隔離)당하였습니다. 백범선생님의 애국혼(愛國魂)과 통일정부(統一政府) 수립을 위한 충정(衷情)은 엉뚱하게 격하(格下)되고 왜곡(歪曲)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歷史)의 평가는 엄정(嚴正)하고, 국민의 분별력은 공정했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백범 선생님은 개인기념관(個人紀念館)으로 부활(復活)하였습니다. 동상(銅像)이 세워지고 전집(全集)이 출간되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생애(生涯)와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념관(紀念館)에는 조국에 바친 70평생의 모든 자료와 사료(史料)가 관계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진열 전시되었으며, 수많은 애국시민 학생들이 찾아오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겨레의 성전(聖殿)이 되었습니다.

또한 70평생의 애국애족(愛國愛族)을 위해 분투(奮鬪)하신 사적(史蹟)을 기록한 백범일지(白凡逸志)를 범인(凡人)의 자서전(自叙傳)으로 남기셨습니다. 지금 백범일지는 50여년 동안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살아있는 본보기로, 가슴 깊은 감동으로 온 겨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비명(非命)에 가신지 어언 54주년입니다. 그해의 6월처럼 올해의 6월도 녹음방초(綠陰芳草) 성하(盛夏)를 이루고 태양(太陽)은 환열합니다. 선생님께서 분단의 통한(痛恨)을 남기신 채, 눈을 감으시기 전에 유언(遺言)

선생님!  
그렇지만 저희는 민족의 미래를 더욱 낙관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의 상황보다 수십 배나 더 어렵고 힘든 일제 식민지 체제(日帝植民地體制)에서도 애국선열(愛國先烈)들과 함께 분연(奮然)히 일어서서 해방을 쟁취(爭取)하셨듯이 우리 겨레도 오늘의 분단(分斷)과 적대관계(敵對關係)를 청산하고 반드시 통일조국(統一祖國)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통일정부 수립(統一政府樹立)이라는 생전의 과업이 쟁취될 수 있도록 후생(後生)들을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이산(離散)된 동포형제와 갈라진 조국이 하나가 되도록 굵어 살피 주시고 도와주소서

선생님!  
선생님을 존송(尊崇)하는 애국동지 애국동포(愛國同志 愛國同胞)들과 소자(小子)는 오늘 백범기념관이 내려다 보이는 묘역에서 제54주기 추모식을 거행하면서 애국정신(愛國精神)과 정의(正義 正道)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필연성(必然性)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의 정신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후생(後生)들을 굵어 살피소서 조국(祖國)의 독립(獨立)과 통일(統一)과 세계평화(世界平和)와 문화국가(文化國家) 건설의 지혜(智慧)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백범 선생님!  
부디 영면(永眠)하실 것을 온 겨레와 함께 두 손 모아 기원(祈願)하나이다.

2003년 6월 26일

사단법인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신(會長 金信)

# 안.사.연 제2회 여름캠프 행사 안내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에서는 작년(2002년) 성황리에 실시한 제1회 여름캠프에 이어 금년에도 제2회 여름캠프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종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 (다 음) -----

- 일시 : 2003년 8월 3일(일)--8월 5일(화) (2박 3일)
- 장소 : 1)경북 안동 일대(회곡동, 상락대, 음수재, 충렬공 묘소)  
2)경북 청송군 주왕산 일대(주왕산 국립공원)  
3)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사(상서공의 원진 국사비)  
4)월포해수욕장, 경주(직계 선조님 왕릉)
- 대상 : 안동김씨 제위
- 목적 : 1)여름 휴가를 맞아 중시조님과 선조님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조상님들의 삶의 흔적과 역사유적들을 체험하고 탐방함으로써 송조의식과 역사 의식 및 은고지신을 제고(提高)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2)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선조님의 묘소 참배와 역사체험을 통하여 효 경의식과 역사지식을 습득케 하고 고유 전통에 대한 자부심 및 민족 의식고취의 산 기회가 되도록 함.
- 주관 : 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
- 후원 : 안동김씨 대종회
- 참가비 : 1인 60,000원 예상
- 차량 이용 방법 : 가족단위 개인 승용차 이용
- 집결 일시 :  
1)제1장소 : 8. 3(일), 10:00시,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출구 밖 도로상  
2)제2장소 : 8. 3(일), 12:00시,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앞 강 건너편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상락대 아래 물가  
3)제3장소 : 8. 3(일), 18:00시 이후, 안동시 녹전면 죽송동 음수재
- 참가신청  
1)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아래 전화로 신청.  
2)신청 기록 내용 : (1)이름 (2)파명 (3)주소 (4)참가 총인원 (5)연락처(휴대폰)  
3)신청 접수처 (1)이메일 : khy5278@chollian.net (2)홈페이지 게시판 : 안동김씨대종회(iandongkim.com) (3)휴대폰 : 011-892-5273 (김항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김씨 홈페이지(iandongkim.com) 공지사항 참조



### ● 도평의공파 파보 편찬 안내 ●

경향각지에 산거하고 있는 도평의공파 종친(都評議公派宗親)께 알립니다. 금년봄 종회때 보첩정비의 제안이 있어 진지한 토의 끝에 의결한 파보발간사업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편찬 발간코저하오니 종친제현(宗親諸賢)께서는 상호연락하여 적극 참여 하시어 누보(漏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수단방법(收單方法)

1. 다음 예시에 의하여 출생 사망 결혼등을 정리하되 예를 따를 것.
2. 학력 00대학졸업 석사,박사(본란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불균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임).
3. 경력 주요 경력을 기록할 것.
4. 배우자의 관향 성명 및 배우자의 부(父) 성명등을 상세히 기록할 것
5. 수단지(收單紙) 상단에 대동보(大同譜)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기록할 것 .
6. 수단비((收單費)는 매인당 기혼은 10,000원 미혼 및 여자는 5,000원
7. 기타 문의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2003년 3월 일  
안동김씨 도평의공파(安東金氏 都評議公派)  
파보편찬위원장 김희운 백(金熙允 白)

**연락처**  
김원희 전화 054-833-5100, 핸드폰 016-219-3244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90-3  
김재희 054-833-4049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193번지

### 미국 뉴욕에서 문중을 빛내고 있는 김수진



수진 종친 여(金修真宗親 女)는 제학공 22대손(提學公22代孫)으로 세응(世應) 전 대한도자기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의 영애(令愛)이며, 전 대종회 고문(前大宗會顧問)이셨던 고(故) 상철종친(相喆宗親)의 손녀(孫女)이기도 하다.修真여사는 서울대학교 英文科를卒業하고 韓國放送公社 P.D와 文化日報 國際部記者를 역임하고 美國유니버시티펜슬베니아대학원(유펜로우스쿨)을 졸업과 동시 法學博士學位를 取得, 美國의 유명法務法人(미국로펌변호사)에서 在職中이며 학

부형자격으로 직슨牧使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聯邦 大法院 判事의 祝辭속에서 졸업식이 장장 3시간동안 장엄하게 進行되었고 聽衆들로부터 많은 感動을 받았으며 미국동부명문 아이버리그대학원에서 우리 安東金氏 家門을 더욱 빛나게 한 자랑스런 宗親이다. 夫君 유승겸은 프랑스에서 학위과정을 수학과 있다.

**學歷 및 經歷**  
1991년 서울대학교졸업  
1992년 韓國放送公社(KBS)1년 재직  
1997년 文化日報 國際部 5년 재직  
2003년 5월 19일 유펜(UPEAN) 로우스쿨에서 法學博士學位 授與와 동시 뉴욕州 法務法人勤務(변호사)

### ♣ 바로 잡습니다 ♣

- 大宗會報79號 2항 牧使公 諱 公望 墓碣銘除幕式 記事 첫 번째부터 넷째줄 묘갈은 조선조의 대학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이암 송인(宋寅)선생께서 짓고 글씨는 차차이신 이(伊)께서 쓰시었다고 기록 되어 있었으나 묘갈은 중종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 상공(相公)의 손자이고 중종대왕 부마(駙馬)이며 대학자 어자명필인 이암 宋寅선생께서 짓고 글씨는 차차이신 이(伊)께서 쓰시었다고 바로잡습니다. 이 記事의 바로잡는 문안은 大宗會顧問이신 在華宗親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다.
- 79호 4항 하단 동정 우편 도평의공파 홍민(洪珉)을 호민(浩珉)으로 바로잡습니다.
- 79호 1항 하단 임원명단 이사중 제학공파 태옥은 기재 착오임을 사과 드립니다.

### 正儀公派 派祖 時祭日 변경안내

지난 79호 회보에 正儀公派 派祖 時祭日字를 每年 음 10월 10일로 정하였음을 보도 하여으나 이후 다시 時祭日字를 변경하여 매년 음 10월 8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려오니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의공파 회장 수진 백

### ▶ 알 ▶ 립 ▶ 니 ▶ 다 ▶

근간에 책장사들이 대종회를 빙자하고 책자를 강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려드리는 바는 근간에 대종회에서는 문고를 발간한 일이 없으며 만일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종보에 공고를 하고 주문신립을 받을 것이지 전화나 방문 판매를 할 일이 아님을 주지하는 바 이니 이후 이런일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 편집실 -----

### ▶ ◀ 부음(訃音) ▶ ◀

#### 대종회이사 昌會宗親 別世

지난 5월6일 안림사공파 창회이사께서 노환(老患)으로 별세하시음을 알려 드립니다. 창회이사는 충북 괴산 청천 출신으로 號는 谷泉이라 했으며 다년간 종사에 헌신 하셨습니다. 안림사공파 이사, 지주사공파 회장, 안양문영공 종회 부회장등을 역임하시며 우리 대종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하셨습니다. 슬하에는 泰俊, 泰勳, 泰秀, 泰鴻, 泰潤 이다.

### ♣ 향전 원예 ♣

**대표 김재균** 전화 : 783-3166, 783-3167, 780,8477  
(경조화환 / 화분)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 1,2호)